

런던 클럽, 코트디부아르 부채 면제

□ IMF의 빈곤감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런던 클럽은 총액 4억 유로의 상업채무를 면제키로 결정, 파리 클럽은 이미 지난 5월 공적채무 구제에 합의

□ 런던 클럽의 채무 구제

○ 2009년 9월 28일 파리에서 코트디부아르 재정경제부 장관인 Charles Koffi Diby와 런던 클럽 조정위원장인 Thierry Desjardins 사이에 예비 협정이 이루어짐.

- 민간 채권자들로 구성된 런던 클럽은 코트디부아르의 총 상업 채무 (2008년말 기준) 1조 3,800억 프랑¹⁾(21억 유로) 중 약 20%에 해당하는 2,680억 프랑(4억 유로)의 채무를 면제하여, 나머지인 80%만이 23년(유예 기간 6년 포함)에 걸쳐 상환될 것임

- 또한, IMF의 재정경제 프로그램 시행 기간에 민간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하는 총 2,770억 프랑 중 554억 프랑만 지불하게 될 것임.

- 이번 협정은 코트디부아르가 IMF/World Bank와 맺은 빈곤감축 및 성장 프로그램(PRGF)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임.

□ 파리 클럽의 채무 구제

○ 올해 5월 15일 파리 클럽과 코트디부아르 사이에 외채 감면 협정이 체결됨

1) 세파 프랑(franc CFA, franc de la communauté financière d'Afrique) 1999년 1월 1일 655,957 F CFA당 1 유로(€)의 고정환율 사용

(Cologne 방식).

※ 참여국: EU(독일, 영국, 프랑스, 이태리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네덜란드, 스페인), 미국, 일본, 캐나다, 브라질, 스위스, 노르웨이

- 고채무빈국인 동국의 2009년 4월 1일 기준 파리클럽 채무는 72억 23백만 달러, 그 중 처리대상은 46억 90백만 달러로서, 그 중 8억 45백만 달러는 면제하고 나머지 38억 45백만 달러의 상환 기일을 조정
- 이 협정에 따라 주요 채권국인 미국은 2009년 9월 24일, 코트디부아르의 연체 총액 991억 6,500만 프랑(2009년 3월 31일 기준) 중 984억 3백만 프랑(2억 870만 달러)을 면제
- EU국들도 채권 총 251억 9천만 프랑 중에서 248억 2,900만 프랑을 면제할 예정
- IMF가 코트디부아르의 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며, 2009년 경제성장 목표인 3.5%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도 외채면제 결정의 한 요인이 되었음

□ 코트디부아르의 외채상환 부담 감소

-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로랑 빠끄보(Laurent Gbagbo)에 따르면 연간 10억 6천만 유로에서 3억 5백만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

<파리사무소 제공>